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한 걸음만 옮기면 마음이 가는 곳

'걸'은 명사로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박여범

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일제강점기의 문화유산이나 영화촬영, 은파유원지, 나포 철새도래지, 맛집 등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은 파이란 하늘 칠각 소리에 쿵덕쿵덕 심장 소리 섬뜩하고 빨리진 발걸음에 고추잠자리 카메라에 얽고 호호후후 사글떡적 낯선 연인의 속삭임에 부끄러워 송골송골 피어 나는 하트 전쟁

'올레'는 제주 방언으로 '좁은 골목'을 뜻하며, '올레길'은 일반적으로 '큰길에서 집의 대문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을 뜻한다.

이처럼, 한 걸음만 옮기면 마음이 가는 곳이 있다. 마음이 가는 곳을 가려면 많은 '걸'을 걸어야 한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예상외로 대형관광 차량이 즐비하고 관광객들로 넘쳐났다. 기대치가 높지 않은 방문이어서 셀카봉도 챙기지 못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갈매'였다. 풍성한 솜사탕이 풍쳐 있는 입구에서부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대충 병장고의 고무마를 손에 들고, 무작정 출발했다. '군산'하면

하이얀 날개가 수줍어 비람 따라 이리저리 뉘를 놓고 흐드러져 수놓

사설 젊은 여성 일자리도 챙겨야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은 전북의 오랜 고민이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여성들도 떠나고 있다.

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북도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챙겨야 한다.

도내 인구 유출 대다수는 청년층일 것이라 여겼었는데 그게 짧은 생각이었다.

전북도는 젊은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기적으로 알아봐야 한다.

출생은 줄고 인구 유출은 증가하고

전북도는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틀린 중반가운 소식이었다.

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늘 강조해 지적하고 있거니와 전북의 인구 감소는 일자리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독자재언

안전띠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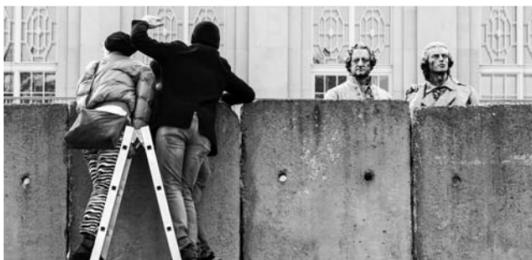
32%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결과 하나만으로도 안전띠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백요고 충청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퍼포먼스 '함께 오르는 벽'



지난 30일(현지시간) 독일 바이마르의 국립극장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아트 퍼포먼스 '함께 오르는 벽' 행사가 열려 아티스트들이 벽에 올라 벽 너머를 시인 괴테와 실러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